

# 디지털 시대, '지식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승 훈(숙명여대)

# 차 례

1. **디지털 시대**, 지식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2. 디지털 시대, 공공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3. 디지털 시대, 지식의 **공공성**이란 어떻게 실현되는가?
4. 디지털 시대, 지식의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 디지털 시대, 지식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 1) 사회구조의 변화 : 성찰성의 증대

- 올리히 벡, "미결정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생의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의 상황과 삶의 과정의 개인화는 생애가 자기성찰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지식 형태와 생산자의 변화

	지식의 형태	지식의 생산자
전근대	삶의 지혜	공동체의 어른(先生, 먼저 산 자)
근대	전문(과학)지식	전문가
현대(디지털 시대)	정보	개인

- 넘쳐나는 단편적 정보들을 모아서 의미(지식)를 만드는 주체는 개인

# 디지털 시대, 지식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 3) 개인화의 역설

- 삶의 과정과 지식의 생산이 점점 더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게 됨
  - 한편으로 그것은 개인 차원의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창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에 의존하고 표준화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됨.
  - 개인 판단력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전문가와 제도, 또는 표준화된  
행위에 의존하게 되는 것임.
- 연대를 상실한 개인화는 역설적으로 표준화와 독재의 온상이 될 수 있음  
(한나 아렌트, 알렉스 드 토크빌 등)

# 디지털 시대, 공공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 1) 지식 유형의 분류

- 부라보이(Burawoy)는 사회학(지식)을 두 가지 질문에 따라 분류
  - "누구를 위한 지식인가?"(지식인, 일반인(고객/대중))
  -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도구적 지식, 성찰적 지식)
- 지식의 분류

	지식인	일반인
도구적 지식	전문 사회학	정책 사회학
성찰적 지식	비판 사회학	공공 사회학

- 비판사회학은 지식의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질문(지식의 공공성) : 공공사회학은 공중과의 대화적 관계를 통하여 지식의 목표와 가치를 구성(공공의 지식)

# 디지털 시대, 공공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 2) 지식의 위계

- 첫째, 지식의 장(場)에 권력의 위계가 존재; 도구적 지식이 성찰적 지식에 비해 더 높은 위계를 차지
- 둘째, 숫자의 통치(이기홍); 통계의 어원은 '국가에 대한 과학'
  - 숫자의 권위 : 객관성과 투명성으로 정당성과 권위 획득;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의 확대에 기여
  - 숫자의 한계 1 : 수량화의 선택 기제  
("숫자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 숫자의 한계 2 : 수량화를 통한 서열화(숫자의 통치 기제; 업적 평가, 등급 평가 등)
  - 숫자의 한계 3 : 정치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으로 이전(탈정치화)  
(숫자는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극복; 아렌트, 세계(공론장)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 숫자의 한계 4 : '자기 규율' 주체 형성; 스스로 계량하고 계산하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됨

# 디지털 시대, 공공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 2) 지식의 위계(계속)

- 셋째, 지식이 점차 공공과 분리. 나아가 지식인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 공공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위축
- 그 결과는?
  - 이반 일리치, 정치가 상실된 전문가의 시대; 또는 다른 무언가(관료, 시장 등)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
  - 신영복, '사람의 얼굴'을 상실한 지식; 실업이나 빈곤이라는 단어에서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을 배제하고 메마른 이론이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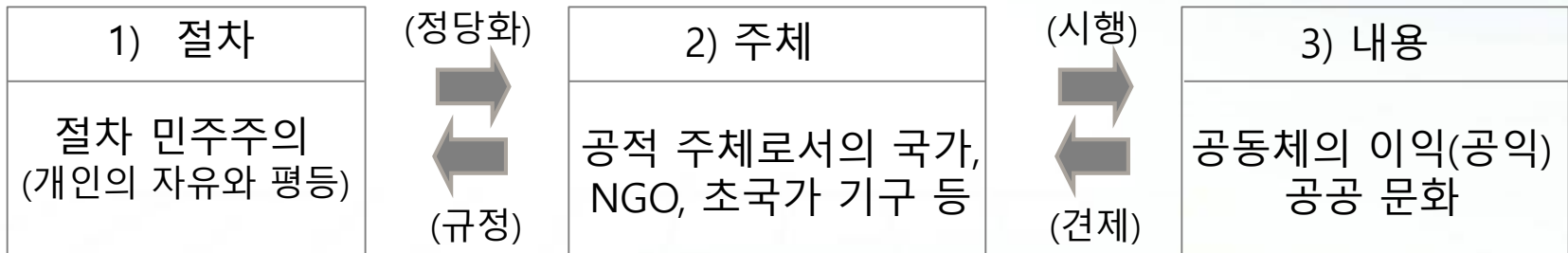
# 디지털 시대, 지식이 공공성이란 어떻게 실현되는가?

## 1) 공공성의 다차원성

- 공공(public)의 의미에 따른 공공성 개념

- 첫째, 투명함과 개방성,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예, 공공 장소, 공공 건물 등)
- 둘째, 개인이나 부분이 아닌 전체와 관련된 속성을 의미(예, 공익, 先公後私 등)
- 셋째,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의미(예, 국가 활동, NGO 활동, UN 등)

- 다차원적 공공성 개념





# 디지털 시대, 지식이 공공성이란 어떻게 실현되는가?

## 2) 지식의 공공성의 딜레마

- 첫째, 절차와 내용 사이의 딜레마 : 모든 이들의 평등한 참여가 항상 공적 가치를 낳는 것은 아님.
  - 지식 영역 : 공공이 참여(생산)하는 지식이 모두 공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님.
- 둘째, 절차와 주체 사이의 딜레마 : 모든 이들의 보편적 참여를 요구하는 절차적 공공성과 참여의 자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주체 사이의 딜레마
  - 지식 영역 : 지식 생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와 공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
- 셋째, 주체와 결과 사이의 딜레마 : 공적 주체가 항상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아님.
  - 지식 영역 : 전문가들의 지식이 모두 공공을 대변하거나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지는 않음.

# 디지털 시대, 지식의 공공성을 위하여

## 1) 지식의 공공성을 위한 과제

- 첫째, 전문가들의 지식이 어떻게 공공의 가치와 이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 전문 지식과 공공 사이의 소통과 접근의 문제
- 둘째, 지식 형성의 주체가 된 개인들이 어떻게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할 것인가?
  -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인 주체의 형성 문제
  -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공 시민은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할 민주주의의 전제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음.

# 디지털 시대, 지식의 공공성을 위하여

## 2) 지식의 공공성 형성의 방안

### (1) 의사소통 공론장의 활성화

- 역사적으로 정치 공론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사적 개인들의 공적 관심과 공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역할도 수행.
  - 전문가와 공공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 마련(예. 공론조사 등)
  - 사적 개인들이 공공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 친밀한 관계, 일상적 토론 맥락, 참여 경험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교육 역할 수행.
  - 인터넷 공론장의 한계 : 참여자의 접근을 확장했지만(절차적 공공성), 공적 가치 형성을 위한 교육 기회(내용으로서 공공성)는 제공하지 못함.

# 디지털 시대, 지식의 공공성을 위하여

## 2) 지식의 공공성 형성의 방안

### (2) '사회적 협동' 모델의 확산

- 존 듀이의 시민 주체 형성 모델을 악셀 호네프가 '사회적 협동' 모델이라고 명명.
  - 하버마스 등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 공론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 사회적 협동 모델이란 시민 주체, 곧 시민(공공)이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
  - "관계 없이 인식 없다. ... 줄임 ... 모든 인식은 그 대상과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발견해 내는 것에서부터, 즉 관계를 자각하고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신영복)
  - 새로운 가치 생성 이론에 근거함. 새로운 가치는 익숙한 사고와 행위의 습관에 균열이 생겼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음. 익숙함의 균열은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임.

# 디지털 시대, 지식의 공공성을 위하여

## 2) 지식의 공공성 형성의 방안

### (3) 문화의 '예(example)' 만들기

- 한나 아렌트, 정치 과정에서 판단이란 이성에 따른 논리적 과정이 아님; 그것은 한 사회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예'의 바탕 위에서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임.
  - 한 사회의 문화의 '예'는 그 사회의 가치이며, 이것은 개인의 가치 형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침; 문학이나 예술도 문화적 '예'의 형성에 중요한 원천
- 우리 문화의 '예'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형성/재형성되는 것일까?
  - 공공성과 관련된 '작은 성공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 디지털 시대, 지식의 공공성을 위하여

## 2) 지식의 공공성 형성의 방안

### (3) 문화의 '예(example)' 만들기(계속)

“예는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한다. 따라서 판단은 '예증적 타당성' 을 필요로 한다. ... 줄임 ...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용기 있는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 또는 평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일반적 규칙들에서 도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사람은 용기가 있다' 라고 말한다. 만일 그가 그리스인이라면,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킬레우스의 예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 줄임 ....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성 프란체스코나 나사렛 예수의 예가 있다”

한나 아렌트, <칸트의 정치철학 강의> 중에서

# 질문과 토론

